"돈바스 넘기면 평화협상"…트럼프, 유럽에 푸틴 제안 전달

NYT "푸틴, 돈바스 획득 조건으로 휴전·재공격 중단 서면 약속 제안"

푸틴쪽으로 맘바꾼 트럼프, 러에 전쟁 지속 '프리패스' 부여 비판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을 포기한다면 러시아와 신속한 평화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유럽 정상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결과를 유럽 정상들에게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고위 유럽 관리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고위 관리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철수하면 현재의 전선을 기준으로 휴전하고 우크라이나 또는 유럽 국가를 재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남부 전선을 동결하고 공격을 멈추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전한 바 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뜻한다.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의 거의 전부, 도네츠크의 약 75%를 장악했으나 도네츠크 서부의 전략적 요충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러 정상회담 직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단순 휴전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은 기존에도 이 두 지역을 러시아에 완전히 넘기는 것을 조건으로 휴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회담 전, 즉각적인 휴전이 최우선 목표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포기를 조건으로 내건 푸틴의 평화 협상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급선회한 셈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1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그간 도네츠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의 기존 영토를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일단은 이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휴전 요구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쟁을 무기한 지속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부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로 가는 길에 "나는 이 살육을 멈추기 위해 왔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외면했으며, 푸틴에게 전쟁을 계속할 시간을 벌어줬다고 NYT는 지적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소재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차 만나 악수하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 '프리패스'를 부여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대사를 지낸 이보 달더는 "그(트럼프)는 또다시 농락당했다"며 "휴전, 심각한 경제적 후과, 실망감에 대한 모든 약속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트럼프를 다시 농락하는 데에는 레드카펫 위에서 2분, (미국 대통령의 전용 차량인) 비스트 안에서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이러한 입장 선회가 1938년 9월 영국 총리 체임벌린과 독일 히틀러의 뮌헨 회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당시 체임벌린은 독일인이 많이 거주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주데텐란트)를 할양하라는 히틀러의 요구를 들어줬다. 이는 나치 독일의 팽창을 막지 못한 유화정책으로 비판받았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국제 외교 역사상 가장 구역질 나는 에피소드"라고 맹비난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와 유럽 지도자들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양새다. 일부는 알래스카로 가는 길에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 지위는 아니더라도 미국이 유럽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일종의 안보 보장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고무됐다고 NYT는 전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간의 3자 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지도자 수준에서 핵심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3자 형식이 이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역시 "트럼프의 노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만들었다"며 그를 치켜세웠다. /연합뉴스

하마스 공세 고삐 이스라엘, 가자 주민 남부 이동 준비

이스라엘 인질 가족, 정부 압박 시위 계획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 밀집지역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앞둔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들을 대거 남부로 이동시킬 채비를 하고 있다고 AP·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호물자 전달을 조율하는 이스라엘군 기구 코갓(COGAT)은 가자 주민들이 전투 지역에서 남부로 이주하기에 앞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텐트와 다른 피난 물품의 배급을 17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물품들은 국방부 인력이 검사를 마친 후 유엔과 다른 국제 구호 단체들이 케렘샬롬 검문소를 통해 반입한 후 운송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군은 덧붙였다.

다만 이스라엘군은 주민들의 이동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피난 물품이 가자 북부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주민들이 이주할 지역이 라파인지를 묻는 말에도 답변을 거부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대규모 이주 계획이 발표되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의 가족들은 이번 공격으로 생존 인질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간 전쟁을 중단하라고 이스라엘 정부에 거듭 요구해온 이들은 17일 하루를 대대적인 총파업의 날로 삼아 인질들의 귀환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이스라엘 인질 가족 단체는 이스라엘인들에게 거리로 나오라고 촉구하며 "전국에서 수백만명이 일상을 멈추고 인질 50명을 모두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자지구에서는 이날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이어졌다.

남부 칸 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은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안전지대'로 지정된 해안지역 무와시의 대피소에서 부모와 어린 딸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공급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군이 하마스의 군사 능력을 해체하고 민간인을 해치지 않도록 예방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양실조도 심각한 상황이다. 유엔은 현재 가자지구 내 기아와 영양실조 수준이 전쟁 발발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가 추가로 11명 나왔으며 이 가운데 어린이도 1명 포함됐다고 밝혔다.

구호품을 받으려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5월부터 가자지구에서 식량 등 구호품을 받으려다가 숨진 주민이 1천76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르헨 교민 2세 세실리아 강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신인감독상

첫 장편영화 '장남'(Hijo Mayor) 수상

아르헨티나 교민 2세인 세실리아 강(사진) 감독이 첫 장편영화 '장남'(Hijo Mayor)으로 제78회 스위스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신인감독상을 수상했다고 아르헨티나 매체 파히나12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강 감독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작품을 만든 신인 감독들이 경쟁하는 '현재의 감독 경쟁'(Concorso Cineasti del Presente) 부문 신인감독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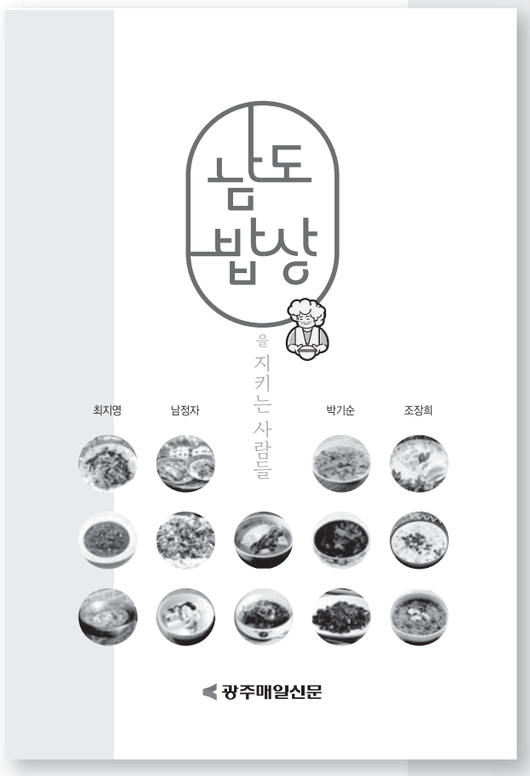
강 감독은 1985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 아르헨티나 국립영화실험제작학교(ENERC)에서 공부했다.

그는 2015년 단편 영화 '비디오게임'(Videojuegos)이 베를린영화제 제너레이션 부문 후보에 오르며 데뷔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내게서 출발한 배'로 국내에서도 알려졌다.

'장남'은 강 감독의 첫 장편영화로 아르헨티나로 이민 온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강 감독은 "'장남'은 기억 혹은 기억하기로 선택한 곳에서부터 시작한다. 기대와는 다른 길을 선택하기로 한 한 남자의 낭만적인 흔적이자, 어떻게 그 길이 도망칠 수 없는 내 삶의 시작이 됐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고 파히나12가 전했다.

그는 장남인 아버지의 아르헨티나 이주 경험을 청소년 딸의 시선으로 본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이민자를 주제로 한 영화 '미나리'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